

조지 페이튼 박사, 성경 번역, 세션 6, 언어, 1부, 의사소통 방법

© 2024 조지 페이튼과 테드 힐데브란트

성경 번역에 관해 강의하는 조지 페이튼 박사(Dr. George Payton)입니다. 이것은 세션6, 언어, 1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번역이 인간 의사소통의 전체 영역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습을 통해 다른 강연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번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번역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번역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번역 과정의 일부로서 성구 참여 자료의 중요성. 성경 참여 자료는 영화, 노래, 말 등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을 성경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성구 참여 자료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정확하고,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람들을 성경 안으로 끌어들이고,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이거나, 이미 신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강연에서 다루었던 번역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여기에 번역의 예가 있습니다.

어제 말했듯이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이러한 예를 봅니다. 이것은 약국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처방전을 환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Medicaid 처방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스페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페인어를 알고 있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글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같은 내용을 전달

했습니까? 음, 이것이 스페인어가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Sortimos recetas de Medicaid입니다.

우리는 메디케이드 처방전을 조제합니다. 굵은 영어 제목과 비교해 보세요. 영어 제목에는 Medicaid 처방전을 환영합니다.

영어는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우리가 채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환영을 뜻하는 단어가 Bienvenidos라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Medicaid 처방 Bienvenidos는 스페인어로 정말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잠깐, 이거 영어에서 따온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번역인가? 번역은 형식에 따른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것은 '아니요, 이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전달하는가? 응, 그런 것 같아. 따라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메디케이드 처방전을 가져오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Medicaid 처방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위해 스페인어를 읽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스페인어는 형편없고 스페인어를 잘 못해요.

그럼 번역을 해보자. 그래서 la entrada de medicina a domicilio es gratuita. 좋아요.

택배는 Medicaid 약물의 첫 번째 부분이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영어의 올바른 번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배송하는지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디케이드 처방전을 전달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메디케이드 약품을 말합니다. 처방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처방전(Prescriptions)은 Medicaid Recetas de Medicaid에 있는 단어입니다.

Recetas는 스페인어의 두 번째 줄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방전을 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료와 무료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줄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표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언어에서 더 이해가 되거나 더 잘 들리는 방식으로 여전히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과 씨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택배라고 해서 정보를 추가한 걸까요?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번역의 특성, 정확성. 그리고 정확성은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제거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택배라고 해서 뭔가 추가했나요? 아니면 그것이 영어 뒤에 숨겨진 의도였습니까? 뭔가를 추가한 걸까요, 아니면 처방전 대신 약을 말하면서 뭔가를 바꾼 걸까요? 아마 아닐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처방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의 핵심입니다. 이는 종이 처방전이나 약을 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약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카운터에 오는 고객에게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로 약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러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집에 갇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어떻게 약을 구하게 되나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당신의 집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어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Uber와 같습니다. 귀하의 사무실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Uber Eats를 이용하고 싶다면 Uber Eats가 맥도날드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당신의 집으로 배달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화를 하거나 약을 배달해 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 제가 온라인에서 찾아봤더니 집이 어디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주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이것이 정말 좋은 번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잘 전달되고 명확하게 전달되며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가 갖기 위해 필요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합니다.

좋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션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은. 우리는 언어 내 사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부 언어는 동일한 언어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 내에서 작업할 때 여전히 좋은 번역과 동일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화 및 의역.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전에 드리지 못한 다른 문장들도 있습니다. Fox 박사에게 연례 신체검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다.

가입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입하기. 연간 대신 매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응, 아마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린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어휘 중 일부를 변경할 것입니다.

신체검사, 검진, Dr. Fox와 함께하세요. 다른 것. 결핵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엑스레이 대용품으로 좋은가요? 음, 아마도. 8살 아이도 엑스레이가 뭔지 알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사진이요.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이 큰 기계를 당신 위에 앉힙니다. 엑스레이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진이라고 하세요. 좋아요. 확인.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은 아이에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른의 말입니다. 좋아요.

결핵. 폐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질환인 결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그것을 그 맥락에 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폐가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폐가 뭔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대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표현하고 구조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맞게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형을 위한 창과 인형을 위한 다른 모든 책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형이 배우려고 하는 일을 수행하고 기능하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에 진정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연극, 수술. 괜찮은. 그렇다면 진정제는 무엇입니까? 내 학생들 중 일부는 이 문장을 말할 때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제는 내 언어로 당신을 잠들게 만듭니다. 나는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의사에게 진정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당신을 잠들게 하는 약이군요.

좋아요. 따라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나는 거기에 담긴 의미가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야? 그들은 어디에 있으며, 이 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나 다음 주에 오실 때입니다. 당신이 수술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 진료실이나 준비 중인 수술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수술에 데려가기 전에 당신을 잠들게 하는 약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덮습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바꿔서 첫 부분에 넣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거기로 데려가기 전에 당신을 잠들게 할 무언가를 줄 것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 수술을 받기 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쯤이면 아이는 자신이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장을 적출할 것이고, 배를 절개하여 꺼낼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이미 이야기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아이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할 때 해당 시나리오를 염두에 둡니다.

좋아요.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토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나요? 토하셨나요? 좋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들 중 몇몇은 토했다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토하지 않고 배가 아플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은 배가 아픈 것에 관한 질문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은 메스꺼움입니다.

사실 토하는 것은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구토라는 단어를 알 수도 있지만 확실히 모든 아이들은 토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살이 되면 많이 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독감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일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해당 문장의 맥락 내에 머물면서 문제 단어나 문구를 일반 미국 영어의 일반적인 의미로 재작업하고 바꿔 쓰는 문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은.

마지막 하나. 의사는 2주 후에 후속 진료 예약을 위해 진료실에서 귀하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좋아요.

의사가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전부라면, 그것이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편하지 않나요? 무엇이 빠졌나요? 후속 약속. 후속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2주 후에 당신이 이룩한 진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약을 먹거나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지난 번 여기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어떤지 알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후속 약속을 전달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2주 후에 다시 오길 원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고, 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간언어에 적용하는 원칙이지만 실제로 번역을 할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휘 조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에게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문구의 단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실은 귀하가 수술을 받게 될 방입니다. 때로는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거기로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당신을 거기로 데려가기 전에 변화하기 전에 약을 주는 것보다 약간의 약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하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 문구를 아이와 듣는 사람을 위해 적절한 표현으로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핵, 특정 유형의 폐 질환 또는 결핵이라는 특정 폐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설명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거대한 기계가 있는 큰 방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기계는 내려와서 여러분의 가슴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본문에만 머물며 추가 내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깨끗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후속 약속을 생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콘텐츠가 거기에 있고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본 언어의 텍스트를 대상 언어로 번역할 때 동일한 종류의 조정, 모든 동일한 종류의 조정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두 언어 간의 언어 간 번역을 할 때 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과정이고 동일한 번역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언어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읽은 여러 책 중 번역에 관한 책의 1장, 그리고 종종 1장의 문장 1을 읽으면 언어와 의사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번역은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 언어의 하위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2외국어. 따라서 번역은 인간 언어의 하위 집합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언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일 사용합니다.

그것은 모두 잠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고 명시적으로 만들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뒷뇌가 아닌 앞뇌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우리는 그것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언어가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호작용적인 사회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개에게 말을 걸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개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과도 깊은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의사소통을 할까요?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의사소통의 모든 과정, 즉 우리가 언어와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방식. 우선 생각입니다. 앉아서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환의 인지 과정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숙고하고 있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로 생각합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처리 그리고 인간 경험의 전체 인지 부분은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입니다. 안녕, 잘 지내? 위대한 인물. 무슨 일이야? 나는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연결을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또 다른 것은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다른 예술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겐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의사소통의 수준이 다르지만 여전히 언어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표현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종,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예술가는 의사소통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특정 시나 무언가를 쓸 때, 심지어 소설을 쓸 때 생각하는 메시지를 염두에 둘 것입니다.

가끔 소설을 읽다가 이 사람이 갈고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에 있고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예술 형태의 단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저씨, 오늘 기분이 정말 우울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그 사람도 당신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정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합니다. 토미, 네가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Tommy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더 먹어야 하나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미는 다섯 입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토미는 4시간 반을 마치고 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요, 한 번 더 끝내야 합니다. 좋아. 따라서 당신은 Tommy에게 말을 걸고 Tommy가 원하는 일을 하면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았어, 알려줘.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 케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계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 살쯤 됐어요. 그리고 그는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엄마, 지금은 947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갑니다, 케리, 정말 좋아요.

그 사람이 왜 당신에게 그런 정보를 주었을까요? 그는 시계를 읽는 방법과 시간을 읽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신났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과 이러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개념은 무엇입니까? 학생을 위한 1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리다.

그들은 교실이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얻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주된 이유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 말은, 내가 지난 주말에 손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야, 그거 알아?'라고 말하려고 거기에 없었던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당신 집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37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입니다! 아, 유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어떻게 지냈나 요? 저는 잘 지내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것이 의사소통의 기본 이유가 되는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확실히 생각하고, 생각하고 처리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창의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는 두 당사자, 두 사람 또는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인관계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이며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진니다(Eugene Nida)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번역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70년대에 동적 동등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이는 매우 오해를 받았고 자신의 요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능적 동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능적 동등성의 영역을 탐구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청중들에게 성경, 즉 성경에 담긴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녹음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향을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를 미혹하여 이 쓰레기를 믿게 한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였느냐? 그래서 Nida는 말이나 발언의 기능이 무엇이며 그것이 번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그것을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꼭 은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는 이유 뒤에 어떤 동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 그렇다면 저자가 의도한

전체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저자의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수사적 기능과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설득하는 수사적 수단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법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 본문의 화자나 필자가 의도한 수사적 기능과 번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형태가 그 뒤에 특별한 이유나 기능이 있는 표현 방식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언어로 가져갈 때 형태가 동일하길 원하십니까? 글썬요, 때때로 우리는 이것의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아이디어, 동일한 의도 및 동일한 영향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목표 언어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기능을 가져와서 목표 언어 방식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를 볼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의 책들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서신서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식, 믿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등을 바꾸도록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경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 토라(Torah)는 토라(Torah)가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므로 토라(Torah)는 가르친다는 뜻이다. 정보를 위한 교육인가? 영향력 있는 교육인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시편, 잠언 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책이나 그 일부를 번역하기 위해 특정한 책을 열기 전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능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글썬,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바울이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말할 때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뭔가를 그만 두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구절을 해석할 때 이것을 알 수 있고, 일단 알고 나면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의도와 원본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저자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이해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언어, 시스템, 의사소통 방식으로 된 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용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하나를 본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보면 이것이 원시시대의 역사이다.

이것이 처음 몇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홍수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족장들의 역사, 즉 족장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창세기는 토라의 일부입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특별히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 녹음된 이유인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치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정보는 Janine Brown이라는 성경학자가 쓴 것입니다. 그녀의 책은 'Scribe as Communication'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제시한 원리 중 일부를 끌어내고 있으며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 Van Hoover, 그리고 다른 성경 학자들도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브라운이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생각해 보면 성경의 저자와 청중이 있으므로 우리는 다음을 압니다. 그 저자와 그의 청중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저자들은 모두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작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아, 이 책이구나'라기보다는 '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책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명심한다면, 성령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도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날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의사소통 과정이며, 하나님은 이 과정에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 중 브라운이 시작하는 것 중 하나는 저자의 의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저자가 의도한 바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특정한 목적을 지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쓰고 싶다고 해서 무작위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책을 내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었고, 특히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이나 글은 그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특정한 이유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가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인쇄된 텍스트가 아닌 저자의 의사소통 행위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견해 또는 우리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쨌든, 이 작가는 누구이고,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사소통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가 놓쳤거나 간과했을 수 있는 본문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쇄된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번역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 말하자면 본문이 결정된 위치나 위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무언가를 말한 사람이고, 그들이 의미한 것은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 그것은 독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독자는 '글쎄,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당신에게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나에게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견해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저자가 아닌 텍스트 자체이지만 텍스트 자체는 우리가 의미를 얻는 곳입니다.

따라서 의미를 보고 텍스트 안에 머무르면 텍스트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내 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의 신학교 교수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본문 밖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며,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텍스트 외부에 대한 힌트와 암시, 참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의 의미만 고수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또 하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다. 글썄, 그것은 그 역사 속에 있고, 그 시대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저자가 의미의 근원을 갖고 있고, 그들이 그 의미를 전달하며,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 견해는 아마도 1900년대 초반, 어쩌면 조금 후에까지 성경 해석의 표준 방식이었고, 그 이후에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세속 작가들조차도 사실 이 저자의 의도에는 뭔가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작가들조차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본문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실제로 알 수 없다는 견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신문 기사나 웹사이트의 내용, 읽고 있는 책은 어떻습니까? 이 작가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왜? 의사소통은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우리의 기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 범주에 맞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관찰은. 시편 1편.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낮과 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거기에서 저자가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런 식으로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정보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 그거 좋네요. 그런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 이상이면 어찌지? 그리고 이것이 저자의 의도의 전부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에도 있습니까? 저자는 애초에 왜 그것을 썼으며, 왜 성경에 포함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자의 의도라는 주제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다음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누구든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바 한 몸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할지니라

바울은 격려하는 것처럼 들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긍휼의 마음을 두라는 명령이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청중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품고, 서로 참아주고, 이 관계에 있을 때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권면처럼 보이는 권면을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도 이것을 읽고 이 본문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은 깊고 신비롭습니다.

이건 어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이니라 마지막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니 이것들은 남아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이라 사랑.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글썄요, 우리는 성경의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2장 끝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은사는 훌륭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약간 비밀스러워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13장이 있는데, 사랑 장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14장을 계속 읽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따라간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런 다음 다시 돌아가서 13장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아,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가 골로새서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와야 한다 등을 분명히 말하는 단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폴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14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른 은사들에 대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와, 여기에 몇 가지 지침이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로? 그럼 먼저, 그게 뭔가요? 둘째, 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같은 책인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쁜 것도 아니고, 먹어도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든 약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기에는 실제로 강력한 명령이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지식 있는 너희가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것과 그 고기 제사하는 곳에서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양심이 약해져서 그것을 먹게 될 수 없겠느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가 당신이 잘못하는 것을 본다면, 그도 나쁜 일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신의 지식으로 인해 약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이며, 우리가 우상의 고기가 되는 우상을 먹음으로써 누군가를 그릇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줌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가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우회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방식으로 인해 영어에서는 그가 그들에게 권고나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내가 고기를 먹을 때 내 동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제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틀렸는가? 제가 하려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바울이 자기 백성과 나누는 의사소통, 성경 기자가 청중과 나누는 의사소통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렇다면 전체적인 질문은 이것을 다른 언어로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세계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해석부터 번역까지,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텍스트의 의도 및/또는 기능 과 텍스트의 화용론을 전달하는 동시에 텍스트의 의미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미가 있고, 의미에 대한 이유가 있으므로 번역할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 목표 언어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 미묘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그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성경의 독자들이 이러한 힌트와 단서, 전달의 미묘한 방법을 포착하고 저자가 청중을 위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몇 분 후에 다른 것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번역에 관해 강의하는 조지 페이지 박사(Dr. George Payton)입니다. 이것은 세션6, 언어, 1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